

## 확장형 소절과 경동사

엄소영  
고려대학교

In this paper, I advance the theory of Korean light Verbs which is grounded upon the new concept 'Expanded Small Clause'. The Expanded Small Clause is the clause which consists of a Verbal Noun and its arguments, and in which all of its arguments are outside the Verbal Noun NP. In light verb constructions, Argument Transfer does not occur, a Verbal Noun does  $\theta$ -mark and Case-check its arguments. While in heavy verb construction, heavy verb is not semantically vacuous, it has argument structure, and thus Argument Transfer indeed occurs.

### 1. 머리말

한국어에는 품사상 명사이지만 술어의 역할을 하는 서술성 명사 부류가 존재한다. 서술성 명사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명사구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 서술성 명사는 자신의 논항과 함께 의미가 생성되기는 하나, 서술성 명사와 논항만으로는 시제, 상, 양태, 서법 등의 문법적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이러한 문법범주를 나타내기 위하여 서술성 명사는 기능동사와 결합하여 완전한 문장을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는 서술성 명사가 기능동사와 결합하여 그것이 하나의 완전한 서술어가 되어 논항을 취하고 문장을 형성한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 서술성 명사는 술어적 속성과 명사적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서술성 명사와 그것과 공기하는 기능동사의 개념과 범위, 통사적 구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정보 처리를 위한 구문 분석 시에도 어려운 점이 많다.

여러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 글은 i) 서술성 명사는 술어의 의미가 명사 범주로 나타난 표현이며, 논항을 요구한다는 점과 ii) 기능동사 '하다' 는 문장의 시제, 상, 양태, 서법 등의 문법 범주를 실현시킨다고 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에 동의한다. 서술성 명사와 기능동사 구문의 통사적인 양상을 살피고 이들의 통사적 구조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기능동사로 설정하는 '하다' 와 서술성 명사가 결합하는 경동사 구문 분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방법론상으로는 지배결속이론과 최근의 연구 동향인 최소주의의 틀로 분석해 보려고 한다.

경동사구문에 대한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소주의의 틀에 부합하기 위하여 확장형 소절(Expanded Small Clause)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경동사구문의 정의를 다시 내릴 것이다. 중동사 구문에 대해서도 경동사 구문과 비교하며 새롭게 정리하고 중동사 구문 분석도 간단하게 시도해 볼 것이다.

## 2. 경동사구문에 대한 기존 논의

이 절에서는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다음은 서술성 명사 ‘소개’와 기능동사 ‘하다’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일반적으로 (가)와 (나)는 경동사 구문으로 분석하고, (다)와 (라)는 일반동사 구문이라고 분석한다.

- (1) 가. 철수가 영희한테 민수를 소개(를) 했다.  
 나. 철수가 영희한테 소개(를) 했다.  
 다. 철수가 영희한테 재미있는 소개(를) 했다.  
 라. (재미있는) 소개를 철수가 영희한테 했다.<sup>1</sup>

채희락(1996)은 설명의 일률성을 위해 위 문장의 ‘소개’와 ‘하다’를 모두 같은 성격의 단어라고 가정하여 (1)의 문장 모두를 경동사 구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2)와 같이 경 1 구조와 경 2 구조를 설정하였다.

- (2) 가. 경 1 구조 :  $VP[\dots, V'[VN+LV]]$   
 나. 경 2 구조 :  $VP[\dots, VN, V'[LV]]$

경동사구문은 일반적으로 경 1 구조와 경 2 구조를 동시에 가지는 중의적 문장이라고 하였다. (1 나)에서는 서술성 명사 ‘소개’가 경 1 구조의 V' 내에 올 수도 있고 경 2 구조의 VP 내에 올 수도 있다. 그러나 (1 가) 같은 경우는 V'의 바깥에는 이미 다른 NP ‘민수를’이 있기 때문에 경 1 구조만 가능하다. (1 다)와 (1 라)는 경 2 구조만 가능하다. 경 1 구조에서 서술성 명사는 경 2 구조의 서술성 명사보다 구조상 더 깊이 위치하기 때문에 수식을 받거나 이동될 수 없고, 따라서 경 1 구조의 서술성 명사가 서술성의 정도가 더 크다고 설명한다.

채희락(1996)은 이러한 구조를 설정하였으나 이 구조로써 어떻게 서술성 명사가 논항에게 의미역을 표시( $\theta$ -Marking)하고 논항의 격을 점검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또한 이 구조로써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의미역 표시를 하고 서술성 명사는 자신의 의미에 알맞은 논항을 요구하고 논항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의 범주는 명사이기 때문에 의미역 표시와 격 점검(Case-checking)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격 부여 설명은 제외하더라도, 그의 논문은 의미역 표시와 관련해서 서술성 명사와 ‘하다’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았다. 무엇이 통사적으로 논항에게 의미역을 표시하는지에 대한 가정이 없다. 서술성 명사가 논항에게 직접 의미역을 표시하는지, 아니면 서술성 명사의 하위범주화 요구가 ‘하다’에 전이되어 ‘하다’ 또는 ‘서술성 명사+하다’가 논항에게 의미역을 표시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2)의 구조를 보고 분석해 볼 때에는 경 1 구조는 서술성 명사의 논항구조가 ‘하다’에 전이되어 ‘하다’가 의미역을 표시하거나 또는 ‘서술성 명사+하다’가 함께 의미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 2 구조는 서술성 명사 자체가 논항에게 의미역을 표시하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2)의 두 가지 구조의 설정은 같은 경동사구문의 의미역 표시 설명에 있어서 일치하는 설명을 이끌어 내지 못 하게 된다. 경동사구문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Grimshaw & Mester(1988)에서는, 일본어의 기능동사 ‘suru’는 직접목적어를 하위범주화하고, 직접목적어에 격을 부여하며, 의미역 표시를 하지

<sup>1</sup> 채희락(1996)의 예 (1).

않는다는 기존 논의를 따르며 일본어의 서술성 명사와 기능동사 ‘suru’의 의미역 표시를 설명한다.

(3) 가. *keikoku* (Agent, Goal, Theme)

나. *suru* ( ) <acc>

다. *keikoku* (Theme) + *suru* (Agent, Goal) <acc><sup>2</sup>

논항구조를 가진 서술성 명사와 기능동사가 결합하여 그 복합체가 논항에게 의미역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성 명사의 논항 중 일부는 자신이 의미역을 표시하고 나머지 논항은 ‘suru’에게 전이되어 ‘suru’가 의미역 표시를 한다고 주장한다. (3 가)와 (3 나)는 논항전이(Argument Transfer)의 입력 정보이고 (3 다)는 그것의 결과 정보이다.

이 주장에도 또한 격 점검에 대한 언급이나 어떠한 통사적 구조 하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논항전이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러한 주장은 규정일 뿐이며 다음과 같은 일반화가 필요하게 된다.

(4) 가. 주어(를 제외하고) 적어도 하나의 논항은 서술성 명사구 바깥에 실현되어야 한다.

나. 주어는 항상 서술성 명사구 바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다. 대상역과 목표역을 취하는 서술성 명사 구문에 대해서 대상역이 서술성 명사구 바깥에서 실현되면, 목표역도 서술성 명사구 바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sup>3</sup>

Grimshaw & Mester(1988)의 논의에 따르면, (4)에 따라 (5 가)와 (5 나)의 문장을 허용하지만 (5 다)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없다.<sup>4</sup>

<sup>2</sup> Grimshaw & Mester(1988)의 예 (13). ‘keikoku’의 의미는 경고이다.

<sup>3</sup> Grimshaw & Mester(1988)i, ii, iii)

<sup>4</sup> Grimshaw & Mester(1988)는 일본어 경동사 구문을 일반화하였기 때문에 한국어와 맞지 않는 점이 있다.

i) \*Sono hookokusho-wa Mary-ni [kaiketsu-no hookoo]-o *SHISA*-o  
that report-Top Mary-to solution-Gen direction-Acc suggestion-Acc  
shiteiru.

*suru*

‘That report suggests to Mary the direction of the solution’

ii) Sono hookokusho-wa Mary-ni [[kaiketsu-no hookoo]-no *SHISA*]-o  
that report-Top Mary-to solution-Gen direction-Gen suggestion-Acc  
shiteiru.

*suru*

i)이 비문법적인 이유는 일본어는 이중목적어제약(Double -o Constraint)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5 가)와 같은 문장을 허용한다. 이중목적어 제약으로 인해서 ii)에서 서술성 명사의 대상역이 서술성 명사구 바깥에서 대격을 실현하지 못하고 속격 표지가 붙어 서술성 명사구 내부에서 실현된다. 그러나 한국어는 (5 나)처럼 대상역이 서술성 명사구 내부에서 실현되는 것이 어색하다.

- (5) 가. ○○닷컴은 기업체에 미디어 정보를 제공(을) 한다.  
 나. \*○○닷컴은 기업체에 미디어 정보의 제공(을) 한다.  
 다. \*○○닷컴은 기업체에의 미디어 정보의 제공(을) 한다.

채희락(1996)은 서술성 명사의 논항 중 단 하나라도 명사구 바깥에서 실현되었을 경우, 그 문장을 경동사 구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외부논항을 가진 서술성 명사는 반드시 문장 또는 절 내에서 (이웃하는) 다른 어휘요소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일반화를 세웠다. 그의 경우, (5 나)와 (5 다)의 비문법성을 설명하지 못한다.<sup>5</sup>

- (6) 가. \*○○닷컴은 기업체에의 미디어 정보의 제공 한 달 동안 한다.  
 나. ○○닷컴은 기업체에의 미디어 정보의 제공을 한 달 동안 한다.

그는 (6)과 비교하며 (5)의 문장에서 통사적인 문법성의 차이를 찾아 볼 수 없고, 차이는 문체적인 차이나 다른 요인으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경동사를 수식한 (6)과 비교하여 (5)의 문법성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6)에서 서술성 명사에 대격 표지가 붙은 경우에만 문장이 좋아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고, (6)과 별개로 (5)의 문법성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 한다.

### 3. 경동사구문의 정의

이 절에서는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동사 구문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한다. 확장형 소절(Expanded Small Clause)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경동사 구문을 정의해 볼 것이다. 이 정의에 따라 서술성 명사의 기능을 이끌어 내고, 경동사 구문의 비문법성을 판단할 것이다. 경동사구문과 비교하여 중동사 구문에 대한 정리도 시도하고 경동사와 중동사를 비교하려고 한다.

#### 3.1. 확장형 소절(Expanded Small Clause)과 경동사구문

2 절에서 기존 논의에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기존 논의에 따라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규정에 그치는 일반화와 제약을 더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기존 논의를 따르지 않고, 이들 분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확장형 소절(Expanded Small Clause)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경동사 구문을 새로 분류할 것이다. 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어와 술어를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로 이루어진 절을 소절이라고 한다. 확장형 소절은 소절의 확장된 개념으로, 서술성 명사구와 그것의 논항으로 이루어진 절을 확장형 소절이라고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sup>6</sup>

<sup>5</sup> 홍재성(1999)도 “서술성 명사구는 통합구성과 분리구성이 가능하고, 통합구성에는 제약이 있어서 제 1 논항(행위지역, 주어)의 내재화는 불가능하다”는 일반화를 세웠을 뿐 (5 나)와 (5 다)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없다.

<sup>6</sup> 홍재성(1999)의 예 (1).

(7) 보고 : <Agent, Theme, Goal>

(8) 가.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을 보고하였다.

나.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8)의 문장들은 서술성 명사 ‘ 보고’ 와 그것이 지배하는 논항들이 동사 ‘ 보고하다’ 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문의 사례이다. 행위역은 주어로, 목표역은 여격보어로, 대상역은 목적격보어와 사격보어로 실현되었고, 시제, 상, 양태, 서법 등의 문법범주는 동사 ‘ 보고하다’ 에 실현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서술성 명사와 ‘ 하다’ 를 하나의 단위로 가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술성 명사와 ‘ 하다’ 는 하나의 어휘로 분석하지 않고 별개의 단위로 구분한다. 필자도 이와 같은 입장이며 서술성 명사와 기능동사 ‘ 하다’ 는 분리시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9) 가.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을 보고

나.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에 대해(서) 보고

그러나 (8)의 문장들은 (9)와 같이 기능동사 ‘ 하다’ 없이 홀로 쓰여 문장의 의미가 전달되기도 한다. (9)에서 ‘ 보고’ 가 술어 역할을 한다. ‘ 보고’ 가 가진 (7)의 논항구조가 실현되어 최소한의 절의 요구가 충족되었고 또한 최소한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9)와 같은 표현들은 하나의 절의 형태이며 그것은 확장형 소절이다.

확장형 소절과 일반 명사구를 비교해 보자.

(10)가. 현장상황에 대한 형주의 보고

나. 형주의 현장상황-(?의+E) 보고

다. (형주에 의한+E) 현장상황-(의+E) 보고<sup>7</sup>

(10)의 표현들은 서술성 명사 ‘ 보고’ 가 핵으로 구성되는 명사구의 사례이다. ‘ 보고’ 의 논항들이 서술성 명사구 내에 통사적으로 통합되어 실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10)에서의 서술성 명사 ‘ 보고’ 는 더 이상 술어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11)가. 부장은 [현장상황에 대한 형주의 보고]를 기다렸다.

나. [형주의 현장상황 보고]가 한 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다. [형주에 의한 현장상황의 보고]는 불필요했다.

라. 참석자들은 [형주의 현장상황 보고]에 귀를 기울였다.<sup>8</sup>

(11)은 ‘ 보고’ 를 핵으로 하는 명사구가 다른 일반 동사나 형용사의 목적격보어, 주어, 사격보어로 실현된 예이다. (11)에서 ‘ 보고’ 는 술어성이 약화되고 명사적 성격이 강해져서, ‘ 보고’ 하는 행위를 가리키기보다 ‘ 보고’ 하는 내용이나 ‘ 보고’ 한 내용의 작성물 등을 가리킨다. 이러한 명사성과 술어성의 차이는 서술성 명사를 논항으로 취하는 동사나 형용사에 따라 달라지지만, (8), (9)와 비교했을 때 술어성이 확실히 떨어진다. 서술성 명사에 격 표지가 붙게 되고 수식을 받게 되면 일반 명사와 같은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명사성이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서술성

<sup>7</sup> 홍재성(1999)의 예 (2).

<sup>8</sup> 홍재성(1999)의 예 (4).

명사의 논항이 서술성 명사구 내부로 들어오면서 논항들은 더 이상 술어의 논항이 아니라 명사의 보충어, 지정어, 부가어 자리를 채워주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10)과 같은 표현들은 일반 명사구로 정의하며, 이러한 일반 명사구는 다른 동사나 형용사의 논항으로 실현된다.

- (12)가.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을 보고  
 나.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에 대해+을) 보고하였다.  
 다. 부장은 [형주가 현장상황-(에 대해+을) 보고-(하는 것을+하기를)]  
 기다렸다.

(12)는 확장형 소절이 실현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2 가)처럼 기능동사 없이 홀로 쓰일 수 있고, (12 나)처럼 기능동사 ‘하다’가 결합되어 문장의 시제, 상, 양태, 서법 등을 나타내어 완전한 문장을 이룬다. 또한 (12 다)처럼 다른 동사나 형용사의 논항으로 출현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확장형 소절에 기능동사 ‘하다’와 결합하여 완전한 절 형태가 되어 다른 동사나 형용사의 논항이 된다.

확장형 소절의 개념과 실현 양상을 일반 명사구와 비교해 보았다. 확장형 소절을 다시 정의 내리면 다음과 같다.

- (13) 확장형 소절은 서술성 명사와 그것의 논항이 외부적으로 실현된 절이다.

따라서 서술성 명사의 논항이 내재화되어 수식형으로 나타난 형태는 확장형 소절이 아니고, 서술성 명사의 논항은 반드시 외부적으로 실현되어 격 표지가 실현된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반대로 서술성 명사가 다른 동사나 형용사의 논항이 되어 일반 명사구가 될 경우는 서술성 명사의 논항이 바깥으로 실현될 수 없고, 명사구 내에서 보충어, 지정어, 부가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서술성 명사는, 자신의 논항이 바깥으로 실현되어야만 술어의 의미를 가지며, 술어의 기능을 한다. 서술성 명사가 자신의 명사구 내에 보충어를 취하면 더 이상 술어의 기능을 할 수 없다.

확장형 소절의 개념을 가지고 경동사 구문을 새롭게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14) 경동사구문은 확장형 소절에 기능동사 ‘하다’가 결합한 구문이다.

이 기능동사 ‘하다’가 경동사이다. 이 정의는 경동사 구문의 서술성 명사의 논항들은 서술성 명사구 바깥에 실현되어 격 표지가 붙은 상태로 나타나야 함을 요구하며, 이 요구는 경동사구문의 문법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즉, 서술성 명사구의 논항들이 서술성 명사구에 내재화 될 경우, 그 문장은 비문법적이다.

- (5) 가. ○○닷컴은 기업체에 미디어 정보를 제공(을) 한다.  
 나. \*○○닷컴은 기업체에 미디어 정보의 제공(을) 한다.  
 다. \*○○닷컴은 기업체에의 미디어 정보의 제공(을) 한다.  
 (15) 가. \*부장에게 현장상황에 대한 형주의 보고를 하였다.  
 나. \*기영이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에 대한 형주의 보고를 하였다.  
 다.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에 대해+을) 보고를 (연기하였다  
 + 묵살하였다).<sup>9</sup>

<sup>9</sup> 홍재성(1999)의 예 (4), (7), (8).

- (16)가. \*영희가 춤스키에 대한 연구 하였다.  
 나. \*김교수가 원자핵의 연구 한다.  
 다. \*준이 주가의 설명 했다.<sup>10</sup>

(15 다)를 제외하고 이 비문법적 문장들 모두는 서술성 명사의 논항들이 전부 또는 일부가 서술성 명사구 바깥에서 실현되지 않고 서술성 명사구에 내재화 된 문장들이다. (15 다)의 경우는 서술성 명사가 다른 동사인 ‘연기하다’, ‘묵살하다’의 논항으로 실현된 예이다. 이때에는 서술성 명사가 다른 동사의 논항이므로 서술성이 약해지고 명사적 성격이 강해진다. 서술성 명사는 일반 명사가 되어 논항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술어처럼 자신의 논항구조를 가지고 논항을 바깥에 실현할 수 없다.<sup>11</sup> 따라서 (15 다)는 비문법적이다. (5)와 (15), (16)의 모든 비문법적 문장들이 (13)과 (14)로 설명이 된다.

### 3.2. 의미 없는 ‘하다’ 와 의미 있는 ‘하다’ 경동사구문

이 절에서는 경동사가 의미가 없는 허사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경동사와 의미가 있는 일반 동사 ‘하다’를 분류해 볼 것이다. 일반 동사 ‘하다’를 중동사라 칭하겠다. 경동사는 의미적으로 비어있기 때문에 논항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동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논항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앞 절에서 본 확장형 소절의 개념과 경동사 구문의 정의는 서술성 명사와 경동사를 하나의 어휘 또는 하나의 복합체로 다루는 것을 거부한다. 서술성 명사와 경동사는 엄연히 다른 단위이며, 의미역 표시와 격 점검과 관계해서도 그 둘 사이의 역할 분담 관계를 부정한다. 경동사 구문에서는 Gimshaw & Mester(1988)의 논항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14)의 경동사구문의 정의에 따르면 서술성 명사가 의미역 표시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동사는 서술성 명사가 확장형 소절을 이루고 난 후에 경동사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확장형 소절은 서술성 명사의 논항이 실현된 형태이다. 경동사와 결합하기 전에 이미 확장형 소절에서 서술성 명사가 논항에게 의미역을 표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 정의는 서술성 명사가 격 점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에 대한 경험적인 예를 살펴보자.

<sup>10</sup> 채희락(1996)의 예 (54), (55), (56).

<sup>11</sup> (15 다)를 문법적인 문장으로 고치려면 ‘보고’의 논항들이 내재화 되어야 한다. ‘부장에게’와 ‘현장상황-(에 대해+을)’은 ‘보고’의 논항이었지만 ‘보고’가 다른 동사의 논항이기 때문에 ‘보고’의 보충어가 된다.

- i) 형주는 부장에게-(의+E) 현장상황(의+에 대한+E) 보고를 (연기하였다+묵살하였다).

보충어에 속격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를 보면, ii)에서 ‘부장에게’가 ‘보고’의 논항으로서 바깥에 실현된 것이 아니라 속격 표지가 생략된 것일 뿐이고 ‘부장에게’의 위치는 명사구 내에 존재하여 서술성 명사의 논항으로서의 구조적 위치와는 다르다.

- ii) 가.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 보고를 연기하였다.  
 나.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 보고]를 연기하였다.  
 다.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을 보고를 하였다.

- (9) 가.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을 보고  
 나.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에 대해(서) 보고  
 (17) 가. 회사측은 하는 수 없이 노조간부들과 협상,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였다.  
 나. 일 학년이 전원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숙사에 입사, 새 학기를 준비하게 된다.  
 다.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로 진격, 온 세계를 긴장시켰다.  
 라. 야당은 결국 그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 국회가 공전되는 사태를 피하게 된다.<sup>12</sup>

(9)는 확장형 소절의 형태이며 (17)의 예는 확장형 소절이 선행절로 나타난 문장이다. (9)와 같은 표현이 쓰이며, (17)에서처럼 확장형 소절이 선행절로 나타날 때 경동사가 실현되지 않기도 한다. (9)와 (17)의 예에서 서술성 명사의 논항은 경동사 없이도 나타났고, 논항의 격은 실현된 형태이다. (9)는 나중에 경동사와 결합할 가능성이 있지만, (17)에서는 확장형 소절이 선행절로서 완전한 절의 형태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경동사 없이 논항에게 의미역이 표시되었으며, 논항의 격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동사는 논항의 의미역 표시와 격 점검의 기능이 없다. 논항의 의미역 표시와 격 점검은 서술성 명사가 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경동사의 의미와 관련해서 보자.

- (18) 가. \*영희가 촘스키-(에 대해+를) 연구 열심히 하였다.  
 나. \*김교수가 원자핵을 연구 십 년 동안 하였다.  
 다. \*존이 주가를 설명 쉽게 했다.

(18)의 문장은 경동사 구문에서 부사가 경동사를 수식한 경우이다. 이들 문장은 모두 비문법적인데, 이 비문법성은 경동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과 관계한다. 경동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식받는 것이 어색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어에서도 허사인 'it' 과 'there', 그리고 의문문에서의 'dummy do' 에 수식을 할 수가 없다. 이들은 의미가 없고 문법적인 기능만 하기 때문에 수식을 받지 못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동사도 수식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경동사는 문장에서 문법적인 기능만을 하는 허사이다.

경동사가 하는 문법 기능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시제, 상, 양태, 서법 등의 문법범주의 표지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 (19)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을 보고-았다.

한국어의 형태론 상에서는 명사범주에 시제, 상, 양태, 서법 등의 문법범주 표지가 실현될 수 없다. 이들 문법범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사범주가 필요하며, 따라서 의미가 없는 경동사가 통사 과정 마지막에 삽입되는 것이다.

경동사와 비교하여 의미가 있는 중동사는 수식을 받을 수 있다. (18)과 비교하여 (20)과 (21)의 예를 들어 본다.

- (20) 가. 영희가 촘스키-(에 대해+E) 연구를 열심히 하였다.  
 나. 김교수가 원자핵을 연구를 십 년 동안 하였다.  
 다. 존이 주가를 설명을 쉽게 했다.

<sup>12</sup> 정희정(1997)의 예 (6).

- (21) 가. 영희가 촘스키-(에 대한+E) 연구를 열심히 하였다.
- 나. 김교수가 원자핵-(의+E) 연구를 십 년 동안 하였다.
- 다. 존이 주가-(의+E) 설명을 쉽게 했다.

(18)과 (20)의 차이는 (20)의 서술성 명사구에 대격 표지가 붙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문장의 문법성이 나아졌다. 이 문장들에서 ‘하다’는 수식을 받았으므로 ‘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1)의 문장들은 서술성 명사구가 자신의 구 내에 보충어를 취해 더 이상 서술성 명사의 역할을 하지 못 한다. 즉, (21)에서는 서술성 명사가 일반명사로 기능하며 이러한 문장은 (14)에 따라 경동사 구문이 아니며, ‘하다’가 수식을 받았으므로 의미가 있는 중동사 구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sup>13</sup>

(21)의 문장들은 (20)의 문장보다 자연스럽게 생각된다. (20)이 (21)보다 어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술성 명사구의 논항이 바깥으로 실현되어 확장형 소절을 형성하였고, 확장형 소절에 결합하는 ‘하다’는 의미 없는 경동사여야 하지만, 수식을 받았기 때문에 ‘하다’에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충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충돌을 서술성 명사에 대격 표지를 실현함으로써 무마시킨다. 서술성 명사에 대격 표지가 붙었다는 것은 술어성보다는 명사성이 강화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술어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격 표지가 실현된 서술성 명사와 함께 나타나는 ‘하다’는 중동사로 분석해야 한다.

중동사 구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본다.<sup>14</sup>

- (22) 중동사구문은 서술성 명사에 대격 표지가 실현되어야 하고,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을 만족시켜야 한다.
- 가. ‘하다’가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 나. 서술성 명사가 수식을 받는다(서술성 명사구에 보충어가 실현된다).
- 다. 서술성 명사가 이동을 한다.

중동사구문의 서술성 명사는 술어성을 잃고 일반 명사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sup>13</sup> 채희락(1996)은 (16)의 문장들은 i)과 비교하여 완전히 비문법적이지는 않다고 했다.

- (16) 가. \*영희가 촘스키에 대한 연구 하였다.
- 나. \*김교수가 원자핵의 연구 한다.
- 다. \*존이 주가의 설명 했다.

- i) 가. 영희가 촘스키에 대한 연구 많이 했어.
- 나. 영희가 「힘든/어려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 다. 영희는 이 공장에서 아주 힘든 일 하고 있어.

그러나 (16)과 i)은 다른 부류의 구문이다. (16)은 (13)과 (14)의 정의에 따라 경동사 구문의 요구, 논항이 바깥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 해서 비문이다. i)은 ‘하다’가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하여 중동사 구문이다.

<sup>14</sup> 이 글은 경동사 구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중동사 구문을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는다. 중동사 구문에 대한 분석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서술성 명사와 ‘하다’가 출현하는 구문에서 경동사구문과 중동사 구문을 구분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 (1) 가. 철수가 영희한테 민수를 소개(를) 했다.  
 나. 철수가 영희한테 소개(를) 했다.  
 다. 철수가 영희한테 (재미있는/민수의) 소개를 했다.  
 라. (재미있는/민수의) 소개를 철수가 영희한테 했다.

채희락(1996)은 (1)의 모든 문장을 경동사 구문으로 분석하였지만, 경동사구문의 정의에 따라 (1 가)' 와 (1 나)' 가 경동사 구문이다. (1 다)' 는 (22 나)로 중동사 구문으로 분석되고, (1 라)' 는 (22 다)로 중동사 구문으로 분석된다. (20)은 (22 가)에 따라 중동사 구문으로 분석하고, (21)은 (22 가)와 (22 나)에 의하여 중동사 구문으로 분석한다.

이 절은 중동사 구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향후 과제로 남기며 마무리한다.<sup>15</sup>

#### 4. 통사 도출

이 절에서는 3 절에서 논의하였던 확장형 소절과 경동사구문의 정의, 그리고 경동사의 무의미성에 대한 논의에 따라 경동사 구문을 도출해 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논의가 타당한지를 통사적 구조, 통사 도출 과정과 관계하여 생각해 볼 계기가 될 것이다.

다음은 일반동사 구문과 경동사 구문, 중동사 구문의 예이다.

- (23)가.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을 알렸다.  
 나.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을 보고 하였다.  
 다.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의 보고를 하였다.

첫 번째로 (23 가)의 일반동사구문을 도출해 보자.

어휘부에서 (24)와 같이 배번 집합이라는 개별 어휘의 모임을 이룬다.<sup>16</sup>

<sup>15</sup> 중동사의 의미는 실체성 명사에 붙는 일반 동사 ‘하다’의 의미와 비슷하다.

- i) 영희가 「밥/나무/숙제」(을/를) 했다.

이 일반 동사 ‘하다’는 의미가 없지 않다. 이 동사는 주어로 행위자만을 취하며 다른 논항으로는 직접목적어만을 가진다. 이 ‘하다’는 ‘someone does something’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중동사가 의미 있음을 이 절에서 살펴보고, 그 의미는 일반 동사 ‘하다’처럼 ‘someone does something’의 의미라고 간주할 수 있다.

중동사에 의미가 있다면 논항구조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중동사는 같이 출현하는 서술성 명사마다 논항구조가 다르다. 경우마다 다른 논항구조를 가지게 된다. 중동사에 경우마다 다른 모든 논항구조를 설정하는 것은 중동사 유형 아래 중동사의 하위 유형을 여러 개로 설정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 중동사는 논항구조를 가지지만 그 안의 구조는 유연하다고 보아야 한다.

Grimshaw & Mester(1988)의 논항전이는 경동사구문 분석에는 맞지 않지만 중동사구문에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서술성 명사의 일부 논항이 중동사로 전이된다고 주장하며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생각해야 하겠다.

<sup>16</sup> 배번 집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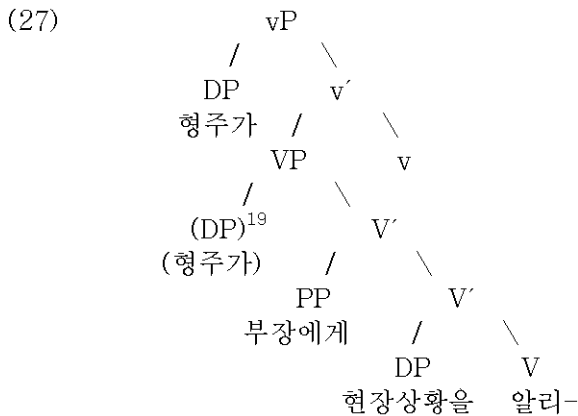
배번 집합(Numeration) :  $(LI, i)$  쌍들의 집합. 여기에서  $LI$ 는 개별 어휘 항목이며  $i$ 는 그 항목이 선택된 횟수이다.

(24) N = {-었-<sub>1</sub>, -다<sub>1</sub>, 알리-<sub>1</sub>, 형주는<sub>1</sub>, 부장<sub>1</sub>, -에게<sub>1</sub>, 현장상황을<sub>1</sub>}<sup>17</sup>

어휘가 배번 집합에서 선택(Select)되어 통사 과정에 출현하고 그것이 또 다른 선택 운용으로 통사 과정에 출현하게 된 다른 어휘와 병합하며 구조를 상향식으로 형성해 나간다.

- (25) 가. N' = {-었-<sub>1</sub>, -다<sub>1</sub>, 알리-<sub>1</sub>, 형주는<sub>1</sub>, 부장<sub>0</sub>, -에게<sub>1</sub>, 현장상황을<sub>1</sub>}  
 나. 부장 <Select>  
 가'. N'' = {-었-<sub>1</sub>, -다<sub>1</sub>, 알리-<sub>1</sub>, 형주는<sub>1</sub>, 부장<sub>0</sub>, -에게<sub>0</sub>, 현장상황을<sub>1</sub>}  
 나'. 부장 <Select>  
 다'. -에게 <Select>  
 라'. [DP 부장]<sub>+</sub>Merge -에게 →[PP 부장에게]
- (26) 가. N''' = {-었-<sub>1</sub>, -다<sub>1</sub>, 알리-<sub>0</sub>, 형주는<sub>1</sub>, 부장<sub>0</sub>, -에게<sub>0</sub>, 현장상황을<sub>0</sub>}  
 나. 알리- <Select>  
 다. 알리-<sub>+</sub>Merge [DP 현장상황을] →[v' 알리- [DP 현장상황을]]

(25)와 (26)과 같은 선택과 병합의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동사범주가 자신의 논항과 병합 과정을 거치면서(각주 3.) 자신의 의미역을 표시하게 된다. vP 까지 도출한 수행도는 다음과 같다.<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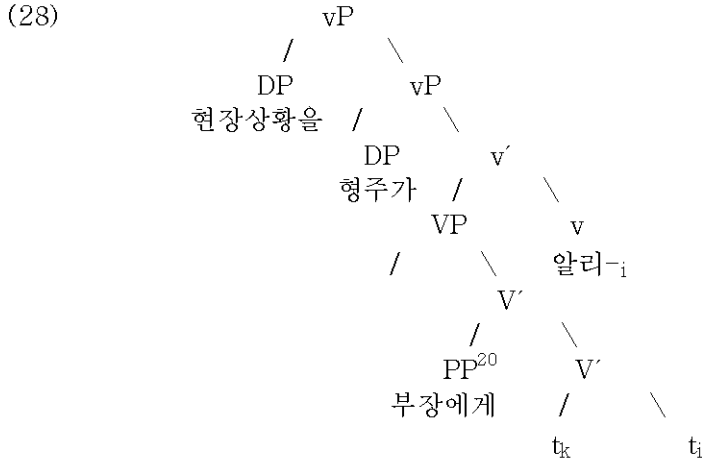
<sup>17</sup> 배번 집합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다. 한국어는 시제, 상, 양태, 서법 등의 문법범주 요소가 동사에 모두 실현되므로, 문법범주를 나타내는 각각의 표지가 하나의 어휘 항목으로 규정된다는 입장과 문법범주의 표지가 모두 실현된 동사가 하나의 어휘 항목 규정된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를 위해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24)와 다른 입장의 배번집합은 다음과 같다.

i) N = {알렸다<sub>1</sub>, 형주는<sub>1</sub>, 부장에게<sub>1</sub>, 현장상황을<sub>1</sub>}

<sup>18</sup> 이중목적어 구문의 자세한 도출은 생략한다. 또한 어순에 대한 논의도 생략한다. Kayne(1994)의 LCA에 따르면 언어의 기본 어순은 SVO이고, 다른 어순, SOV, VSO 등의 어순은 이동으로써 배치될 수 있다. 이 글에서의 분석은 편의상 LCA를 따르지 않는다.

<sup>19</sup> 외부논항은 VP의 지정어나 vP의 지정어 위치에서 병합하여 의미역을 표시 받을 수 있다.

‘알리-’의 논항들이 차례로 결합하면서 의미역 표시가 된다. 이 vP는 논항들이 처음 출현하여 의미역을 표시하는 곳인 의미역 영역( $\theta$ -domain)이다. 이제 논항들은 격 점검을 하기 위해 의미역 영역 바깥으로 이동해야 한다.



첫 번째로 대격을 점검하는 과정이다(28). 대격은 자신의 격을 점검해 줄 수 있는 문법범주인 v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게 된다. ‘알리-’가 v로 이동하고 ‘현장상황을’이 vP의 바깥 지정어(Outer Spec) 자리로 이동한다.<sup>21</sup> 여기서 ‘현장상황을’은 ‘알리-’와 지정어-핵 관계로 대격을 점검을 받게 된다.<sup>22</sup>

<sup>20</sup> 전치사의 논항은 AgrPP나 PP의 바깥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여 격 점검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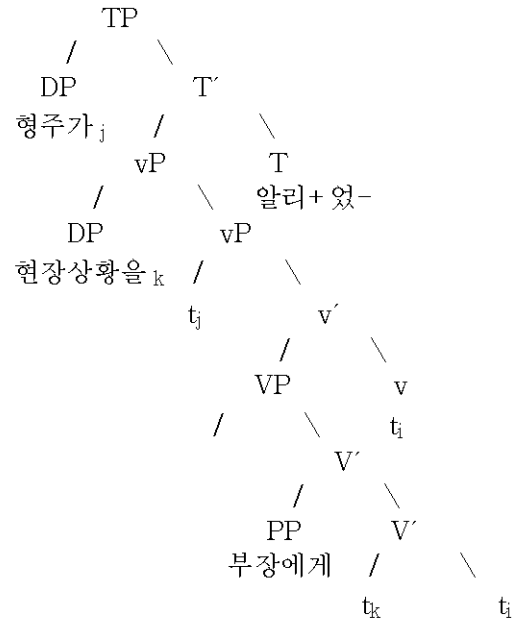
i) I gave her a book.

i)의 문장에서 ‘her’는 AgrIOP나 vP의 바깥 지정어 자리, 직접목적어가 이동한 곳 보다 위의 바깥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여 격 점검을 하게 된다.

<sup>21</sup> Relativized Minimality를 준수하기 위해 동사가 먼저 이동하여 minimal domain을 확장한 후, 논항이 이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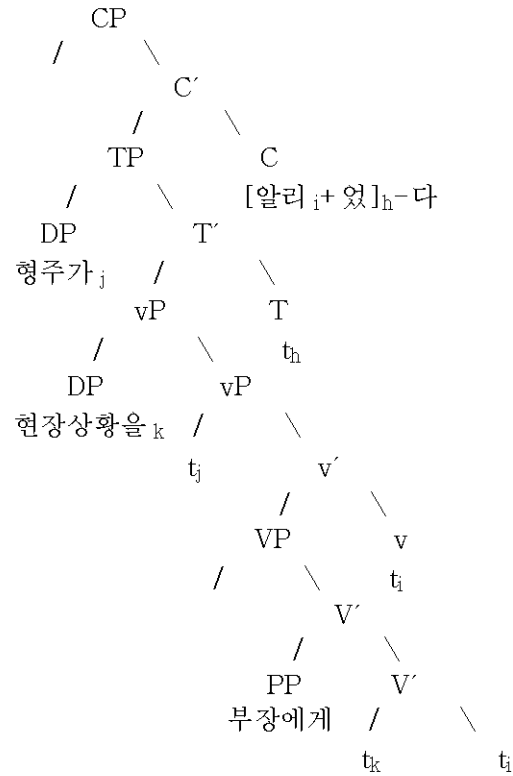
<sup>22</sup> VP-꺾질구조는 다중지정어(Multiple Spec) 구조를 허용한다.

(29)



두 번째로 주격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29)를 보면 ‘알리-’가 T로 이동하여 ‘-었’에 포함한다. 이 T 요소가 T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 ‘형주가’와 주격 점검을 하게 된다.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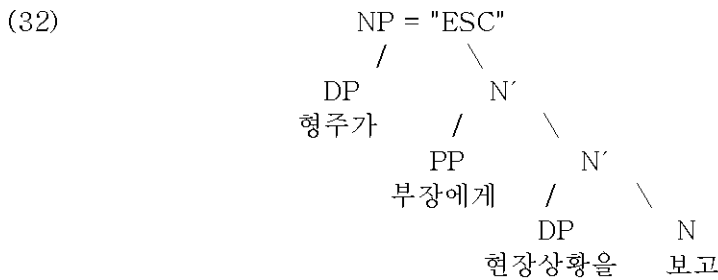
(30)은 CP 까지 도출해 본 것이다. T 의 ‘알리었-’ 은 C 로 이동하여 ‘-다’ 에 포함되고 문장을 완성시킨다.

이제 경동사 구문을 분석해 본다.

(23 나)는 다음과 같은 배변 집합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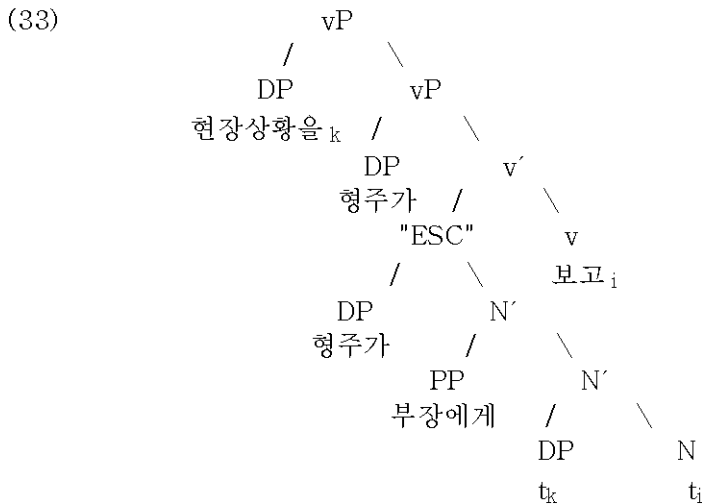
(31)N = {하<sub>-1</sub>, -었<sub>-1</sub>, -다<sub>1</sub>, 보고<sub>1</sub>, 형주는<sub>1</sub>, 부장<sub>1</sub>, -에게<sub>1</sub>, 현장상황을<sub>1</sub>}<sup>23</sup>

(25), (26)의 과정처럼 선택과 병합의 운용으로 구조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일반동사 구문과 다른 점은 명사범주 ‘보고’가 논항에게 의미역 표시를 한다는 것이다. 수형도로 나타내 본다.



서술성 명사의 논항들은 서술성 명사구 안에서 처음 출현하고 서술성 명사구와 차례로 병합하면서 서술성 명사에 의해 의미역을 표시 받게 된다. NP 가 의미역 영역이고 이는, 의미역 영역은 어휘투사여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한다. 경동사 구문에서는 동사 투사가 아닌 명사 투사영역이 의미역 영역이 되며, 이는 곧, 확장형 소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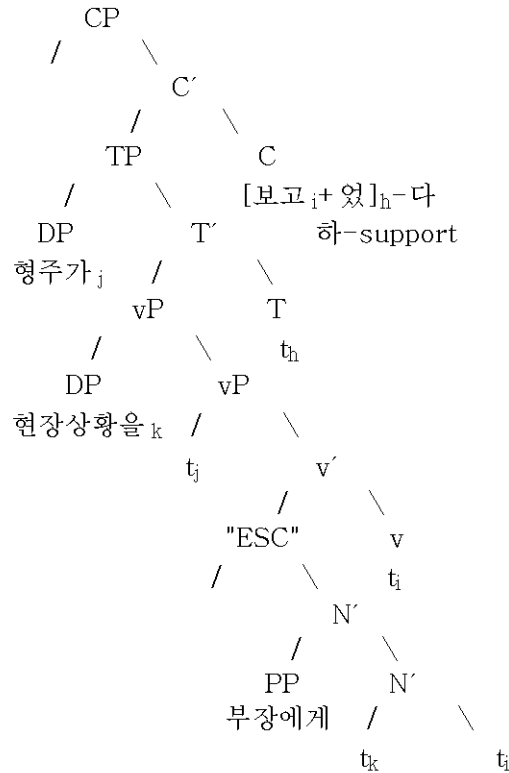
다음 단계는 논항들이 격 점검을 하는 과정이다. (33)을 보자.



<sup>23</sup> Chomsky(1998)의 ‘Subset Lexical Array’를 따르면 ‘하다’는 최초 배변 집합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Boskovic(1997)은 ‘Merge over Move’에 따라 ‘it’과 ‘there’처럼 필요할 때에 어휘부에서 선택되어 병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다’가 최초 배변 집합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자.



(35)



‘ 보고+았-’ 이 C 로 이동하여 ‘ -다’ 와 포함되어 ‘ 보고+았+다’ 가 된다. 이렇게 하여 통사 도출 과정을 마쳐 음운 실현을 위해 음운형태(PF)로 보내게 된다. 그러나 이 때, ‘ 보고+았+다’ 는 발음을 할 수 없고 따라서 파탄이 나게 되므로 (31)의 배변 집합에 있던 의미 없는 경동사 ‘ 하다’ 가 통사 과정 마지막에 삽입되어 발음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듯 경동사는 도출 과정 마지막에 들어오므로 (18)과 같이 경동사는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분석은 경동사가 통사과정 처음에나 중간에 병합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경동사는 통사 과정에서의 기능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병합될 수 없다. 이는 최소주의의 기본 가정인 경제성(economy)을 준수하며 최후수단(Last Resort)에 부합하는 분석이다.<sup>24</sup> 따라서 최소주의적 분석으로서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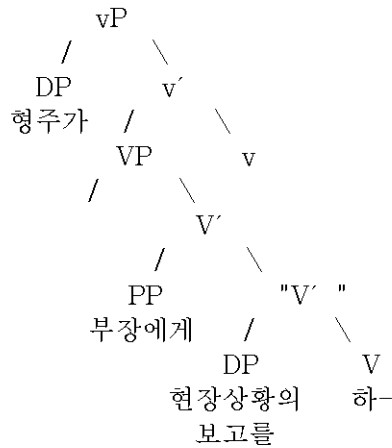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중동사 구문을 경동사 구문과 비교하여 통사 구조를 도출시켜 본다. (23 다)는 (36)과 같은 배변 집합을 갖고 선택과 병합을 하여 (37)과 같은 구조로 논항에게 의미역이 표시된다.

(36)N = {하-<sub>1</sub>, -았-<sub>1</sub>, -다<sub>1</sub>, 보고를<sub>1</sub>, 형주는<sub>1</sub>, 부장<sub>1</sub>, -에게<sub>1</sub>, 현장상황의<sub>1</sub>}

<sup>24</sup> 사실 ‘하다’가 C에서 삽입되는 것도 최후수단에 어긋난다. ‘보고+았+다’의 실현 요구는 음운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통사 과정이 다 끝난 후에 음운부로 가기 전에 ‘하다’가 삽입되는 것으로 도출해야 한다. 필자는 영어의 ‘do-supprrt’와 함께 경동사도 음운부에서 삽입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Franks(2001)은 ‘that’의 음운부 삽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서 Chomsky(1998)의 ‘Subset Lexical Array’와 Halle & Marantz(1993)의 ‘Distributed Morphology’를 전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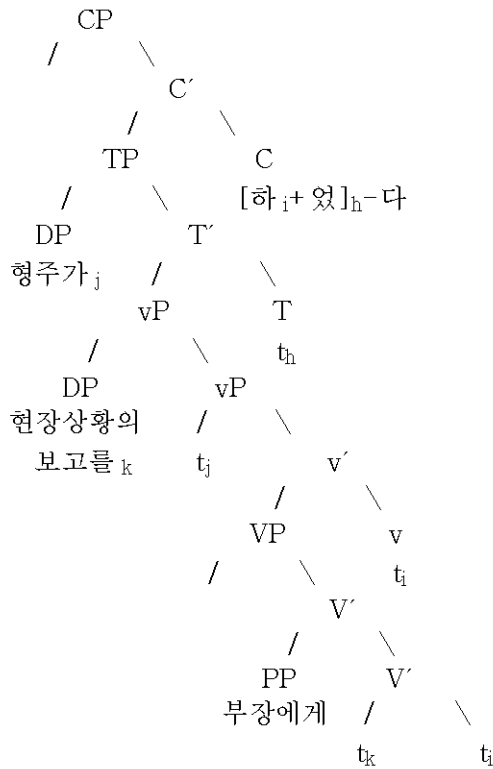
각주 26)에서 언급하였듯이 ‘하다’가 배변 집합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통사 도출은 ‘보고+았+다’의 형태로 마치고 음운부에서 ‘하다’가 삽입되어야 한다.

(37)



중동사는 경동사와 다르게 통사 과정 처음에 출현한다. 서술성 명사는 일반 명사구(DP)가 된 이후로 서술성 명사가 아니지만 어휘 속성상 가지고 있던 논항구조에서 일부 논항을 ‘하다’ 에게 전이시킨다. Grimshaw & Mester(1988)의 논항전이 이론을 중동사에 적용할 수 있다. 서술성 명사구 ‘현장상황의 보고를’ 과 ‘하다’ 가 첫 번째 V'를 이루며 병합하면서 논항전이가 일어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과정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38)은 경동사구문과 비교하여 도출을 완성 시켜 보았다.

(38)



## 5. 서술성 명사의 대격 표지

이 절에서는 앞에서 설명을 미루었던 경동사 구문의 서술성 명사의 대격 표지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서술성 명사의 대격 표지 실현은 경동사 구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현상은 한국어에서 일반적인 다중격실현 구문, 즉 다중주어 구문, 다중목적어 구문 등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1)\* 철수가 영희한테 민수를 소개(를) 했다.

(1)\* 은 서술성 명사에 대격 표지가 실현되었을 경우, 경동사구문의 정의와 중동사구문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이 문장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부류가 된다. 그러나 서술성 명사의 격 실현은 수의적이므로 경동사 구문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술성 명사는 중절에서 논항에게 의미역 표시를 하고 격 점검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경동사에는 의미역 표시와 격 점검의 기능이 없다. 그러므로 서술성 명사의 대격은 경동사가 점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술성 명사의 대격 표지 실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첫 번째 가능성은 서술성 명사구의 대격 표지를 초점화, 주제화와 관계하여 설명하는 것이다.<sup>25</sup> 다음의 예는 이중 격실현 구문이다.

(39)가. (이) 우동-(은+ 이) 국물이 맛있다.

나. 영희는 철수를 손을 잡았다.

(가)는 ‘우동’ 이 주제화 된 문장이며, (나)는 문맥에 따라 다르지만 ‘철수를’ 이나 ‘손을’ 이 초점화 된 구문이다.

(40)가. 떡볶이를 영희가 먹었다.

나. \*떡볶이 영희가 먹었다.

(40)은 ‘떡볶이를’ 과 ‘떡볶이’ 가 초점화 되어 앞으로 이동한 경우이다. 초점화 될 때 명사구가 격 실현이 안 되면 비문이 된다. 따라서 초점화 될 때이나 주제화 될 때에는 명사구의 초점화나 주제화 표지가 실현되어야 한다.<sup>26</sup>

이는 CP 안에 있는 범주인 Focus 와 Topic 에서도 자질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와 같은 경우는 초점화나 주제화 표지가 없기 때문에 Focus 와 Topic 에서 자질 점검을 해야 함을 관찰하지 못 했을 것이다.

(41)The boy I love.

‘the boy’ 의 비해석 격자질은 AgrOP 의 지정어 자리나 vP 의 바깥 지정어 자리에서 격 점검을 하여 해석 자질로 바뀐다. 해석 자질을 가진 명사구는

<sup>25</sup> 이에 대한 논의에서 옳지 않은 점이 있을 지도 모른다. 더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향후 과제로 남긴다.

<sup>26</sup> 명사구의 격 표지가 실현 안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포즈를 주면 정문이 된다.

i) 가. 이 우동, 국물이 맛있다.

ii) 나. 떡볶이, 영희가 먹었다.

FocP(Focus Phrase)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여 Focus 에서도 자질 점검을 한다. 이미 해석 자질이 되었기 때문에 Focus 에서 자질 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나)에서는 ‘떡볶이’의 격자질이 없어 Focus 에서 자질 점검을 할 수가 없다. 가시적으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LF에서의 설명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문이 된다. 경동사 구문에서 서술성 명사구의 대격 표지 실현은 서술성 명사구가 초점화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서술성 명사구가 FocP 로 가시적인 이동을 하지 않았고 LF에서 FocP Spec으로 이동하여 자질 점검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위해서는 Focus 나 Topic 에 특별한 요구가 있어서 자질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문법범주 C와 T에는 의미가 아닌 문법과 관계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 문법의 대칭성(symmetry)을 위해서 아마도 Focus 와 Topic 범주에 형식 자질이 있을 것이다.

(42)이 새는 날개가 있어도 날지를 못한다.

위의 예는 어린이들의 퀴즈 프로그램에서 타조에 대한 설명으로 아나운서가 어린이에게 문제를 읽어 줄 때 한 말이다. 아나운서는 어린이가 이 문제를 맞추게 하기 위하여 날지 못한다는 속성을 강조하며 말한 예이다. 동사에는 격 표지가 실현될 수 없는데 이 때의 격 표지 ‘를’은 초점화 표지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격 점검 설명이 안 되는 격 실현은 음운부의 문제로 설명하는 것이다. 서술성 명사가 항상 초점화 되어 초점화 표지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 초점화의 의미 없이 수의적으로 주격과 대격이 실현되기도 한다.

(43)가. -하지(를) 않는다/ 좋아(를) 한다/ ...  
나. 할 수(가) 없다/ 예쁘지(가) 않다/...

서술성 명사구의 대격 표지가 실현된 양상은 서술성 명사와 ‘하다’의 변형이기도 하다.

(44)공부하다/공부(를) 하다

따라서 이러한 표지는 의미가 없는 표지이기 때문에 통사 도출 과정에서 자질 점검을 한 것이 아니라 음운부에서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표지이다.<sup>27</sup>

강조를 할 때에도 (43)와 각주 20)의 i)의 예들과 서술성 명사에 격이 실현되기도 한다. 서술성 명사의 대격과 다중 격 현상은 위의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6. 맺음말 및 향후 과제

경동사 구문은 확장형 소절에 경동사 ‘하다’가 결합한 구문이다. 이 정의로 경동사와 서술성 명사의 성격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경동사는 의미적으로 비어있고 통사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는다. 서술성 명사는 논항을 가지며,

<sup>27</sup> 각주 27)에서 지적하였듯이 ‘that’, ‘dummy do’, 경동사와 같이 음운부에서 삽입된다는 이론과 같은 맥락이다.

논항에게 의미역을 부여하고, 논항의 격 점검도 한다. 경동사 구문과 비교하여 중동사 구문에 대한 정리를 이끌어 냈다. 서술성 명사가 다른 일반 동사, 형용사, 중동사의 논항이 될 경우는 술어성을 잃게 되고 일반 명사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경동사 구문을 최소주의적 접근법으로 분석하여 경동사는 모든 도출 과정이 끝나고 마지막에 삽입하는 것으로 보았다. 일반 서술어와 중동사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동사구문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그러나 중동사 구문에 대한 정의는 자의적이었고 지금까지의 설명은 비문이 왜 비문법적인지 설명을 할 수 없다.

- (45)가. 철수가 영희한테 민수를 소개했다.  
 나. 철수가 영희한테 소개를 했다.  
 다. 철수가 영희한테 민수의 소개를 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45 가)와 (45 나,다)를 구분하는데 (45 나,다)는 서술성 명사에 대격 표지가 있기 때문에 서술성 명사가 명사로 기능하고 (45 가)는 동사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필자는 (45 가,나)를 경동사구문으로, (45 다)를 중동사구문으로 분석하였다. 필자가 경동사와 중동사로 나누었던 것은 기존 분류에 차이를 드러내고자 (45 다)와 같은 구문에 이름을 붙인 것이었다. 따라서 (22)와 같은 정의는 규정일 뿐 설명은 할 수 없다.

후속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분류의 틀은 유지하되 중동사에 대한 이름을 버리고 (45 다)와 같은 구문에서의 ‘하다’가 진정한 경동사 즉, Chomsky(1995)의 ‘little v’에 위치하는 동사라고 분석하고, (45 가,나)의 ‘하다’는 의미적 기여가 없는 동사임을 보일 것이다. 또한 확장형 소절의 설정 이유와 설명력이 부족한데 후속 논문에서는 확장형 소절의 개념을 수정하여 언어 보편적인 현상임을 보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명윤 외. 1999. 최소주의 이론의 이해. 대우학술총서 440 공동연구.  
 강범모. 2001. 술어명사의 의미 구조. *언어학* 31. 03-28.  
 남경완. 2005. 한국어 구문 분석을 위한 서술성 명사 연구. *어문논집* 51. 127-153.  
 박현아. 2007. 한국어 서술성 명사의 실현 양상. *Kling* 1. 191-202.  
 정희정. 1997. 서술성 명사의 통사적 특성. *사전편찬학 연구* 7. 115-148.  
 채희락. 1996. ‘하-’의 특성과 경술어구문. *어학연구* 32 (3). 409-476.  
 홍재성. 1999. 기능동사 구문 연구의 한 시각: 어휘적 접근. *어문논집* 41. 135-173.  
 Boskovic, Zeliko. 1997. *The Syntax of Nonfinite Complementation: An Economy Approach*. Cambridge MA: MIT Press.  
 Chomsky, Noam. 1995. *Minimalist Inquiry*.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Franks, Steven. 2001. A PF-insertion Analysis of that. *Indiana University*.  
 Gimshaw, Jane. 1988. Light Verbs and  $\theta$ -Marking. *Linguistic Inquiry* 19 (2). 205-232.  
 Halle, Morris. 1993. Distributed Morphology and the Pieces of Inflection. eds. Alec Marantz *The View From Building 20*. Cambridge MA: MIT Press.  
 Hornstein, Nobert. 2005. Understanding Minimalism. eds. Jairo Nunes and Kleantes K. Grohmann. New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Kayne, Richard S. 1994. *A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엄소영  
 고려대 언어학과  
 성북구 안암동 5가  
 ptcc03@korea.ac.kr